전주시가족센터, '고국에 선물 보내기' 추진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가 추석을 맞아 고향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고국에 선물 보내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시가족센터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최동원)이 협력해 오랜 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그리움을 달래고, 가족 간 유대와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120여 명의 다문화가정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지원한 김, 라면, 영양제 등 생활용품을 포장해 EMS(국제특별우편)으로 고향 친정에 보냈다. /장은성 기자

안성여성의용소방대, 전국 강의경연대회 장려상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안성여성의용소방대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전북자치도 대표로 심폐소생술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과 강의 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열렸다. 생활안전과 심폐소생술 두 분야로 진행된 이번 경연에는 전국 19개 시·도의 최정예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안성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5월 30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심폐소생술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북 대표 출전권을 획득했으며, 당시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강의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정은선·황영아 대원이 출전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연과 명료한 전달력으로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소방서, 추석 앞두고 요양병원 화재안전 점검

고창소방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많은 인원이 시설을 찾는 동시에, 환자와 노약자가 생활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지난 16일 진행된 현장 점검에서 소방서는 성내면에 위치한 메디케어요양병원을 방문해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가스 등 주요 화재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살폈다. 또한 병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방시설 정상 유지관리 △화기 취급 주의 △비상시 신속한 대피 유도 등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고창소방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안전보건공단 전북,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경영교육부장 조성형)가 17일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완주 봉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과 캠페인을 병행하며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사망사고 예방 특별 강조주간'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고위험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조성형 경영교육부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폭염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만호 기자

알 림

▲소외계층을 위한 '전주사랑 열린음악회' = 일시: 20일(토) 오후 2시, 장소: 완산체육공원 공연장(중인지), 주최: 전주시 장애인 복지협회, 참고: 전주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문의: 086-6678, 010-7304-5665.

한국농수산대 최한석 교수, 학회 우수논문상 영예

효소 기반 무증자 기술로 전통주 산업 새 지평 열어 … 발효 공정 비용 감소 · 품질 향상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최근 열린 '제46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농수산융합학부 푸드테크 전공의 최한석 교수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교수는 '효소를 이용한 고구마 소주의 발효 특성과 향기 성분' 연구로 이번 상을 거머쥐었다. 해당 논문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로 주목받으며, 전통주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2024년 전통주 제조업체와의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효소 기반 무증자 증류식 소주 제조 기술'을 토대로 했다. 이 기술은 기존 전통주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찜(증자)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입국을 효소로 대체함으로써 생쌀이나 생고구마 등 원료 그대로 증류주를 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발효 공정 비용을 무려 8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고구마 특유의 은은하고 풍부한 향을 더욱 강화해 전통주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이 경제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은 획기적인 성과로, 전통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부터 이 기술을 5개 기업에 이전해 강릉·전주·완주 지역 3개 업체에서 이미 제품화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희망하는 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진 한농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농산물 기반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탄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협력 연구와 기술 이전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와 전통주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김우주 전임의, 치주조직 재생 연구로 국제학술상 2관왕

전북대학교병원 치주과 김우주 전임의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잇몸 조직 수복용 점착성 생체소재 개발' 연구로 Hatton Award와 (재)대한치주연구소 우수학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경연대회는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가 주관하고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개최됐다. 김 전임의는 '광중합성 생체접착제와 콜라겐 매트릭스를 병합한 치은 조직 재생 평가'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병원 치주과 윤정호 교수 연구팀과 포항공과대학교, ㈜바이오브릭스가 공동으로 수행한 것으로, 탈세포화 점막조직 세포외기질 기반 점착성 수복재와 콜라겐 매트릭스를 치은 결손부에 국소 이식하여 실제 조직 재생 효과를 평가한 최초 사례다.

연구 결과, 구강 내 스캐닝과 조직 계측 분석에서 점착성 생체소재를 적용한 실험군은 이식재 고정성·접착력·생착률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 각화치은 재생도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점막조직 세포외기질 기반 점착성 생체소재가 향후 치주조직 재생 치료제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우주 전임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치주조직 재생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앞으로 환자 맞춤형 재생치료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후학 양성에 써주세요"… 퇴임 전북대 교수들의 제자사랑

조기성 교수 1000만원 · 이창헌 교수 500만원 기탁… 전공 학과 인재 양성에 사용

지난 8월 말 퇴임한 전북대학교 조기성 교수(사진 왼쪽)과 이창헌 교수가 후학 양성에 써 달라며 각각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지난 8월 말 퇴임한 조기성 교수(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와 이창헌 교수(산림환경과학과)가 후학 양성에 써 달라며 각각 1천만 원과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두 교수의 전공 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학업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기성 교수는 "미래의 토목공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헌 교수 또한 수십 년간 학문과 교육에 헌신하며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으며, 이번 기부 역시 그 뜻을 이어가는 따뜻한 실천이다.

한편 이 교수의 퇴임을 맞아 환경임업연구실 제자들은 진수당 앞에서 커피차를 준비해 은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조기성 교수님과 이창헌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7~29일까지 신규임용예정 지방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교육행정 28명, 사서 4명, 시설 6명, 공업 4명, 시설관리 14명, 운전 16명 등 총 72명으로, 교육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59시간으로 강의와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교육은 단순한 직무 지식 전달을 넘어, 조직문화 적응과 공직윤리 확립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초기에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선배와의 소통을 넓혀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은 교육감 권한대행 특강을 시작으로 전북교육 주요 정책 이해, 청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효자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교대, 완산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6일 완산소방서 교동 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교직원과 소방대원 약 80명이 참여, 황학당 건물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화재 발생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초기 화재 진압부터 대피 유도, 구조 및 복구 활동까지 전 과정이 포함된 실질적인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주교대는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사랑의 빵 전달식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9월 16일,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소방발전위원회와 '사랑의 빵'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평소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단팥빵 등 약 150여개를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직원이 직접 준비해 의미를 더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와 직원들은 소방관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평소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특히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은 소방차에 직접 탑승해보는 체험을 통해 안전의 소중함과 소방관의 역할을 직접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 안전점검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17일 장수종합경기장 및 의암공원 일원에서 18~21일 열리는 제19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경찰서장 지휘하에 경비, 교통 등 경찰 관련 부서는 물론 행사 추진위원회와 장수군청,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등 행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중점적인 점검은 많은 사람이 몰리는 초대가수 공연 중 또는 인파해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객 밀집 동선에 따른 비상시 조치사항 △안전관리 요원 배치 계획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로 확보 △주차 및 교통관리 등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한 준비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 성덕면, 효열장 수상자 혼다 다쯔코씨 선정

김제시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9회 성덕면민의 날'을 맞아 면민의 장 '효열장' 수상자로 혼다 다쯔코(53)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혼다 다쯔코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혼인해 성덕면에 정착한 이후 현재까지 만 89세와 만 80세의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효행을 몸소 실천해 왔다.

또한 3대가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살림을 알뜰히 가꿔 미풍양속 진작과 마을 화합에 크게 기여해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아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실시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오석)가 지난 16일 2025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를 접하고, 위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됐으며,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목포시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선진 사례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